

## 예술을 사랑했던 화가 『드가』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가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녹아 있어야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드가는 화가였지만 음악과 발레에 심취했다. 그는 자신의 취향을 그림으로 표현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드가는 음악 마니아로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 공연을 보고 난후 그들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을 그렸다.

드가가 음악가들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다.

무대 아래에 있는 악기 연주자들은 그린 이 작품은 드가가 친구 바순 연주자 테지오 디오를 그리려고 했으나 결국 집단 초상화가 되었다. 이 작품을 드가는 처음 구상은 했을 때에는 한 음악의 초상으로 시작했지만 화면이 복잡해지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장면으로 바꾸었다.

이 작품에서 연주자들은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석에 앉아 있고 조명을 받아 환한 무대 위에는 발레리나들이 춤을 추고 있다. 발레리나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 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레리나의 얼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발레리나의 다리만 보이고 있지만 발레리나의 화려한 의상과 어두운 오케스트라 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면 중앙에 바순을 불고 있는 남자가 이 작품의 주인공 테지레 디오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실제의 음악가들은 4명밖에 없다. 드가는 음악가들 대신 친구들에게 연주자들의 옷을 입혀 놓고 포즈를 취하게 한 다음 정확하게 그렸다.

드가는 친구들 각각의 초상화를 화폭에 모음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그는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음악가들보다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포착하려 했다.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1870년경, 캔버스에 유채, 56\*46,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사람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좋아했던 드가에게 발레리나는 최고의 주제였다. 하지만 드가는 발레리라의 화려한 모습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다. 그는 감정의 분출로 탈진한 무희의 얼굴, 고된 연습을 하는 무희들 등 무대 뒤의 모습을 그리게 했고 그것은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드가의 발레리나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무대 위의 무용수>다. 이 작품은 발레리나가 무대 중앙에서 혼자 동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커튼 뒤에서 서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발레리나들은 간략하게 생략하면서 무대 중앙의 발레리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대 뒤에 발레리나들 옆에서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는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수석 발레리나의 후원자를 나타낸다.

중앙의 발레리나는 아라베스크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드가는 그녀의 팔 동작과 약간 기울어진 머리, 한쪽만 보이는 다리, 화려한 의상을 통해 발

레리나의 동작을 잘 포착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무대의 앞부분이 생략되고 있는 데 드가가 높은 위치의 관람석에서 발레리나의 동작을 포착한 것이다. 또한 구도가 불안정한 것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발레리나의 순간적인 동작을 포착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대 위의 무용수>-1876~1877년, 종이에 파스텔, 58\*42,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이 작품에서 무대 중앙의 발레리나 이외의 배경은 자유로운 터치로 처리하고 있으며 배경에 산으로 보이는 무대장치는 무대의 공간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당시 귀부인들은 몸을 완전히 가린 긴 드레스를 입었지만 무용수들은 맨다리와 팔이 드러난 얇고 허술한 의상을 입고 있어 노동자 계층의 소녀들이다.

드가의 발레 그림 시리즈에서도 주제가 변화되었다. 주제가 변함에 따라 드가는 대상을 발레리나에서 발레와 관련된 인물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에드가 드가<1834~1917>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활동을 같이 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관심을 가졌던

자연스러운 빛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이고 사라지는 현장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드가는 당대 최고의 데생화가로 사라지는 것들은 화면 속으로 붙잡아 두기를 희망했다.